

1일 Market Index			
코스피	2301.56	코스닥	739.23
	(+23.57)		(+3.13)
금리 (국고채 9년)	4.071	환율	1357.30
	(-0.014)		(+6.80)



고금리에 빛 부터 갚는다... 기업들 10억 초과 예금 ‘뚝’

6월말 저축성 예금잔액 1633조 10억 초과 고액예금은 3% 감소 정기예금 4.6% 줄어 감소 전인

고금리 지속되자 부채부터 축소 만기 시기 기업중심 상환 늘 듯

기업들이 정기예금에서 거액을 인출해 회사채와 은행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빛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정기예금·정기적금·기업자유예금·저축예금을 포함한 저축성 예금잔액은 6월말 기준 1632조9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622조6940억원)과 비교해 10조2780억원(0.6%) 늘어난 수준이다.

◆ 10억원 초과예금, 10년만에 감소
반면 저축성예금 잔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은 같은기간 796조3480억원에서 772조4270억원으로 3% 줄었다.

10억원 초과예금은 2018년 6월말 532조원에서 2019년 593조원, 2020년 650조원, 2021년 716조원, 2022년 78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0억원 초과예금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2013년 6월말 379조5800억원에서 같은해

12월말 362조8260으로 줄어든 이후 약 10년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10억원 초과예금 감소를 이끌었다. 정기예금 중 10억원 초과예금 잔액은 538조8160억원으로 지난해 말(564조5460억원)과 비교해 25조7300억원(4.6%)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들이 예금만기가 되면 기업대출을 상환하거나 회사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더뎠고, 고금리상황이 계속되자 부채를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회사채, 은행대출 금리 인상... 기업 빛부담 ↑

실제로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무보증 3년·AA-) 채권금리는 4.908%로 한달 전(4.658%) 보다 0.25%포인트(p) 올랐다. 3개월 전인 7월 말(4.467%)과 비교하면 0.44%p 높다.

기업들의 회사채 상환액도 늘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4조6748억원, 상환액은 7조5298억원으로 순발행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기업대출은 9월말 기준 5.27%로 한달전과 비교해 0.06%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5.34%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국제 금값 고공행진

전쟁 여파로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간 기준 국제 금값은 지난달 8.19% 올라 3월(8.8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현물 기준 금값은 한때 온스당 2006.83달러에 거래됐다. /뉴시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상환하는 기업도 많지만, 대출을 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며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연말 연초 예금만기 도래시기에 따라 여력이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환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SM 시세조종 이어 분식회계 의혹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제동’

모빌리티 3000억대 회계조작 의혹 회계 부정 사실 확인 땀 상장 희박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정조준하며 그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재계 순위 10위인 카카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가능성은 희박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을 문제 삼고 재무제표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제공하는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분식회계 여부 등을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매출을 부풀리면 영업이익이 낮아져 오히려 상장에 불리하다”며 “외형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법인 또는 개인기사)에 광고 노출 등의 대가로 운임의 15~17% 정도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운임의 3~4%만을,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액의 분식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업무 제휴 계약은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 등의 대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공개(IPO) 계획도 틀어진다. 뿐만 아니라 관련 경영진 등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 목적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처럼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도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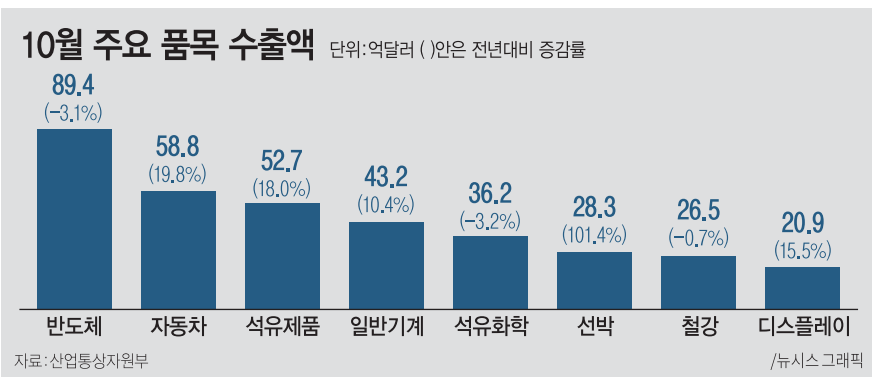
반도체 살아나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10월 수출 550억 9000만 달러 車·선박 등 늘고 반도체도 개선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여 ‘메가서울’에 ‘천공 음모론’ 꺼내... ‘행정 대개혁’ 역제안도
▲ 조경태, 대통령에 ‘그만두라’한 김용민에 “국회의원 자격 없어” /사진 뉴시스

▲ 박수영 “경기 분도, 정치인·공무원만 좋아져... ‘메가 서울’이 월등”
▲ “충남에서 미래를 투자하라”... 김태흠 지사, 유럽 경제시장에 프러포즈



▲ 이재명, ‘친명 총선거획단 논란’에 묵묵부답 /사진 뉴시스
▲尹, 민생 타운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국민들과 직접 소통’

외국인, 3개월째 ‘셀 코리아’… 증시 반등 가능성도 불투명

한달간 주식시장서 3.4조 순매도
두달 연속 조단위 매도세 이어져
20여년만에 코스닥 최대폭 하락

“기업들 실적개선 기대 크지않아
올해·내년 영업익 추정치 하향”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증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잔재하고 있는 만큼 증시 반등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896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지난 9월에도 2조2822억원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두 달 연속으로 조 단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코스피도 지수 2300선을 내주며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코스피가 전 거래일(2277.99)보다 23.57포인트(1.03%) 오른 2301.56에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장보다 소폭 상승하며 2301.56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닥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9.4%, 12.5%씩 떨어지면서 2001년 닷컴버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단순한 수급 개선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보다는 체질 개선에 가까운 펀더멘털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도 크지 않아 최근 한 달 동안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4% 4.4%씩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10월 수출입 동향도 주목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550억9000만달러(74조4817억원)로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9.7% 줄어든 534억6000만달러(72조2726억원),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2조2183억원)로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월에 수출이 흑자전환됐고, 경기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경제기초)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을 선볼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17.08)과 주가순자산비율(PBR0.83)이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있지만 증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 고금리 환경 지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내 증시가 악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도 식고 있다. 지난 8월 16일 20조5040억원까지 도달했던 신용거래잔고는 10월 30일 기준 17조1838억원까지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예금금리가 3~4% 중반대, 단기채권이 5~6%대에 달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역머니무브(주식시장으로 흘러간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 수요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증시 위축과 증권사들의 증거금률 상향 조정 등의 과정이 이뤄지면서 신용거래 규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면 ‘반도체 살아나자 수출’서 계속

“기술·품질 최우선… 도전·혁신 DNA 발전시켜야”

삼성전자, 창립 54주년 기념식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성장 견인 신사업 적극 발굴하고
AI·데이터 기반 생산·효율 향상을”

삼성전자가 위기 속에서도 ‘조격자’ 기술을 향한 도전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1일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과 근속상 및 모범상 시상과 기념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한종희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을 포함해 임직원 400여명이 함께했다.

한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임직원 노고에 감사하며 4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기술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최고의 고객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준비를 더욱 강화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함께 실천할 것 등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특히 한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하는 경쟁력이라 꼽으며 시대 변화에도 삼성전자는 기술 선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품질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도 언급했다. 불황기에는 단기적 성

과에 집착하기 쉽지만 오히려 도전과 혁신 DNA를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 격차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해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초연결도 빼놓지 않았다. 여러 제품을 잘 연결해 더 큰 가치를 제공하며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자며, 조직도 ‘고객 중심’ 기업을 위해 경계를 넘어 ‘원 삼성’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준법 문화 정착도 과제로 빼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고객이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래 사회와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혁신 제품발굴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동행’ 철학을 따라 2주간 전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나눔워크’ 캠페인을 추진한다.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 ▲사업장 인근 지역 사회 봉사 ▲헌혈 참여 등 ‘일상의 나눔’을 펼친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오랜만에 재개했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배식 봉사를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을 찾아 아동들의 놀이·학습·문화 활동을 돕는다.

한 부회장은 “기존에 잘해왔던 사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을 적극 확대해가자”면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영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주류 이어 햄버거 업계 가격인상… ‘먹거리 물가’ 또 켜짐

맘스터치·맥도날드, 일부 제품값 올려
서울유유·매일유업 등 유업체 동참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에도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소주와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가 또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류가 인상 대상이다. ‘켈리’와 ‘테라’ 출고가도 평균 6.8% 인상한다. 판매율이 높은 모든 500ml 캔은 가격을 동결했고, 발포주 ‘필라이트’의 355ml 캔과 1.6L 제품은 인상률을 최

소화했다.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경쟁사들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류 업계는 상반기 가격인상을 유보했지만 원료와 제조비 상승으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소주와 맥주 출고가가 오르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소주 출고가가 70~80원 인상되면 식당에서는 인건비, 식재료 가격인상분 등을 더해 병당 1000원씩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권 식당의 주류가격을 보면 소주가 5000~6000원, 맥주가 6000~7000원 선이다. 1000원씩 가격이 오르면 가격 인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원 A(36)씨는 “엔데믹이에도 외식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집에서 요리해 먹는 날이 많다”며 “연말이라 모임도 많은데 술값이며 밥값 등 전부 오르니 약속을 잡아야 할지 갈등된다”고 말했다.

주류 업계에 이어 햄버거 업계도 연쇄 가격 인상이 이뤄질 분위기다. 맘스터치는 최근 닭통가슴살 패티를 사용하는 버거 품목 4종의 가격을 3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2일부터 버거 4종, 맥모닝 메뉴 1종, 사이드 및 디저트 7종, 음료 1종 등 13개 메뉴를 평균 3.7% 인상할 계획이다.

롯데리아와 버거킹 등은 아직 가격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선 조만간 가격을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유 가격 인상에서 서울유유허동조합을 시작으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졌다.

주요 유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유유는 ‘나100%우유(1L)’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기준 가격을 각각 3%와 4.9% 인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수출 안정적인 우상향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우상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서 그 근거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세와 반도체 개선세를 들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출 감소가 -3.1%인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이외 다른 품목도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라든지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10월 메모리 반도체 자체만 보면 1.0%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가균형-지방분권’ 계획 통합… 기회발전 등 4대 특구 도입

지방시대 종합계획

4대 특구 일자리·정주여건 개선
5곳 이상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지방정부, 규제 특례 직접 설계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을 확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그간 별도로 만들어졌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처음 통합한 것으로 5개년 중기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이 핵심이다. 지역인재를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여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전 기업의 신규 부동산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막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토록 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특구 선정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추진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게 목표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려 특구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점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와 지역 콘텐츠 진흥사업을 추진해 문화특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 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방 이전 기업, 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전액 면제(5년간)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가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4곳을 지방에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구 이전 기업은 세제 및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또 5년이 지난 후 2년간은 법인세의 절반 감면이 추가된다.

이들 지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역시 전액 면제다. 재산세의 경우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받는다.

그간 상당수 기업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을 꺼려왔다.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기업

이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이전할 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과세 이연을 실시한다. 특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지연하는 것이다.

기업 소유주에게는 상속세 혜택도 제공된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특구 이전 사업체 소유주에겐 관련 의무 면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특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기획하고 있다. 회사에 함께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대책이다.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임직원이 특구 내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책정한다. 단 새로 산 집의 공시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는 수도권 집종의 주원인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尹 대통령, 건축재정 재강조… “불필요한 지출 줄여 서민예산 재배치”

비상경제민생회의

타운홀 방식 진행… 60여명 참석
“어려운 서민들 두통하게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통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게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의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

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작년 6월 29

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확장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비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서예진 기자 syj@

3분기 적자 문제없다… 동박, 투자·기술개발로 경쟁력 ‘강화’

중국발 공급 과잉 등에 적자전환 ‘동박 위기설’ 극복에 투자 이어가 SK넥셀리스,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 롯데에머티, 고강도 등 제품 구축도

동박 제조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동박 기업들은 동박 시장의 시장성을 보고 투자와 기술 개발을 단행 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동박 업체들은 3분기 실적 하락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SKC는 2023년 3분기 매출 5506억원, 영업손실 447억원을 기록했다. SKC는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이 손실 규모가 컸다.

SKC의 동박 부문을 맡고 있는 SK넥셀리스가 지난 2020년 편입된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SKC는 올해 3분기 매출 5506억원, 영업손실 447억원이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으며, 매출은



2차 전지용 동박.

/SKC 제공

전기 대비 11.3%, 전년 동기보다 32.8%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전분기에 비해 87억원 늘어났다.

이재홍 SK넥셀리스대표는 31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 판매량이 줄어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전력 단가 등 원가는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은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

에 일부 재고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1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1·2분기 영

업이익도 동기대비 각각 72%, 94% 급락하며 61억원, 15억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동박 업계의 실적이 부진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국발 물량 공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산 동박의 물량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국내기업들도 판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동박의 판가가 낮다고 해도 동박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필수 재료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동박은 음극재에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배터리 재료비의 5~10%를 차지한다. 동박업체들은 대체로 15~2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는 동박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26만5000톤(t)이던 동박 수요가 2025년 74만8000t으로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터리용 동박만 떼어내어 보면 글로벌 시장 규

모는 2025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성장하는 동박 시장 전망에 동박업체들은 ‘동박 위기설’을 극복하고 투자를 단행하는 중이다.

SK넥셀리스는 4분기부터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SK넥셀리스의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실적은 4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SK넥셀리스의 첫 해외 공장인 말레이시아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5만7000t 규모로 올해 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기술력과 원료 확보로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동박원료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향후 10년간 동박원료 60만t을 확보했다고 1일 발표했다. 또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고강도·고연신의 하이브리드형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외면 받는 청년도약계좌… 고물가 속 5년 만기 ‘부담’

7~10월 누적 가입자 총 45.4만명 당초 계획했던 300만명 부족할 듯 은행권 고금리특판 등에 매력 없어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4개월 만에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5년이라는 장기 납부 부담과 70만원이라는 월 납입액이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3만2000명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총 45만4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초 계획했던 올해 가입자 3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뉴스시스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

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

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년이라는 장기 납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시 첫 달인 6월에는 가입 신청자가 76만1000명에 이르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 9월 9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신청 폭도 저조해 흥행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말까지 중도해지한 청년은 8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 해지이유는 ▲5년이라는 장기 납입 ▲전세대출 이자 증가 ▲은행권의 고금리 특판 예·적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A씨는 “상품 출시 초기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부담스러웠지만 6% 금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현재는 대출이자도 많이 오른 상태고 은행들의 5~7%대 상품이 많이 등장해 청년도약계좌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4~5% 예·저금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5~7%, 상호금융의 경우 10%대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가입기간이 부담이라고 금융권에 출시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sy2665@

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무기한 엄정 단속”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브리핑 범죄 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키로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엄정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악질범죄로 규정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중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5개 조직 등 주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단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한다.

경찰은 범죄 첩보 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한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나홀로 사장님 437만명, 15년 만에 최대

비임금근로자 수 672만4000명 전년 동월대비 3만8000명 늘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의 수가 15년 사이 최대치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전년동월에 비해 3만 명 넘게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43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0.8%)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455만8000명)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다. ‘나홀로 사장’ 수는 최근 1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 2018년에 403만 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19년(412만

7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9000명(4.4%) 증가했다. 한편 자영업자 수(직원 고용·홀로 운영 합)는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

무보수로 일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0.6%)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취업자 수(2867만8000명)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23.4%)은 1년 전보다 감소(-0.1%포인트)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8만3000명 줄어든 1616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국민의힘 혁신위, 다음 행보는 ‘희생’… 특권폐지 등 고심

1호 안건 ‘대사면’ 당사자 반발에도 포용하는 모습 보이며 통합 행보

2호 안건 영남 중진 협지 출마론 포합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내세운 ‘대사면’ (징계 취소)에 대한 반발에도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발언하는 등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1호 혁신안이 오는 2일 최고위에 보고된 후엔, ‘특권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1호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혁신위의 입장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이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인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한 번 만나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CBS라디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사면’이라는 표현에 반발한 것을 두고 “그럴 자격도 없고 법도 아니니 (홍 시장 말이) 맞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징계 취소”라고 표현을 수정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인 위원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으니 중심

을 잡고 잘해달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원로 어른이지 않나”라며 “저는 귀가 굉장히 얇다.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유승민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유 전 의원을 만나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

다”며 유 전 대표를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또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이 이같이 거침없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는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 1호 안건에 담긴 ‘통합’이라는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어 당 지도부가 처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징계 취소 처리를 판단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문제라는 게 혁신위의 입장이다.

이후 혁신위가 내놓을 2호 안건은 ‘희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희생’, ‘통합’, ‘다양성’을 혁신위의 핵심 의제라고 제시한 바 있다. ‘통합’은 1호 안건에 담겼고, ‘희생’은 2호 안건에 담기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희생’이라는 범주 안에 ‘영남 중진 협지 출마론’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영남 중진 협지 출마론에 대해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이

상 못 한다”며 “(국회의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혁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느냐”면서 “영남권 중진 서울 차출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권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정당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치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에 영남 중진 협지 출마론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당도 덕성 강화를 위해 총선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희생’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특권을)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非명 지역구에 친명계 ‘자객 공천’ 가능성

‘처럼회’ 비례대표 의원들 대거 출마 非명계 “통합 해치는 분열 행위” 홍익표 “사무총장, 공천 개입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거획단을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준비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지만, 비이재명계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비례대표 의원과 원외 인사를 공천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친이재명계 비례·원외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이재명계나 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가리지 않고 대거 출마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같은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 지역 사무실을 냈다. 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에서, 유정주 의원은 서영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정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도 대전대덕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덕구는 비이재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

역구이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충청권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인선됐다가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

인 광주서구갑에선 강위원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사무총장이 준비 중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원외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당 대변인을 지냈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맞붙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경당 상근부대변인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이렇게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비이재명계는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명을 넘어서 총선거획단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인선한 것도 통합을 해치는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송갑석 의원이 혁신계(비명계) 최고위원에 있었는데, 호남 출신의 자리에 갑자기 충청 출신을 이변에 앉힌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자객공천 명단에

있는 친명계를 앉힌다는 것은 통합을 바라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니냐”라며 “지난번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사표도 냈다. 지금도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누구에게 유리한 공천은 시스템상 가능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한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요 당직을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전제가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어떤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은 20곳 안팎일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도전자들 사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통합위,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촉’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1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마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

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특히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의 청년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 F’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개 분야로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野, 조정식 사무총장 필두로 총선거획단 출범

현재 13명 인선… 추후 2명 추가 임명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을 준비할 총선거획단이 1일 출범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총선거획단장 맡는 총선거획단이 꾸려졌다고 발표했다.

권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15명 인사를 구성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13명이 인선됐고 추후 2명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원회수석부위원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 관련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 최태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베타 변호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원내에서 9명, 원외에서 4명이 임명됐다. /박태홍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주요 보험사 CEO 임기만료 코앞 세대교체 바람에 연임 ‘불투명’

김기환 KB손보 사장 올해 만료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내년 3월

좋은실적에 연임 가능성 높지만
분위기 쇄신 흐름에 교체 예상도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계도 예외가 아닌 ‘세대교체’ 바람 속에서 경영성과를 인정 받아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 CEO의 임기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중으로 만료된다. 양사 CEO 모두 취임 후 탁월한 경영 실적을 보여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금융지주의 세대교체 의지 등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임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 사장은 취임 후 경영 성과들로 미뤄 볼 때 연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021년 3월 취임해 첫째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 KB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이익(5577억원)을 냈다. 성과를 인정 받은 김 사장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임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올해도 KB손해보험은 상반기 5252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좋은 실적을 거뒀다. KB금융그룹 계열사 중에는 KB국민은행 다음으로 많은 순이익규모다.

하지만 내년 1월 양종희 신임 KB금융지주 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계열사 대표 대부분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경우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김 사장은 1963년생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삼성화재 대표로 선임된 홍원학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홍 대표는 삼성생명 부사장을 거친 후 삼성화재 CEO에 선임된 정통 ‘보험맨’이다. 취임 후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둔 만큼 실적으로는 연임 가능성을 의심 받지 않는다.

2022년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1

조1410억원으로 흥 대표 선임 전(2020년·7660억원) 대비 약 3750억원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1조2166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증명했다.

정통 보험맨임에도 흥 대표 연임의 장애물은 역시 삼성금융그룹의 세대교체 의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계열사 CEO 교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64년생인 흥 대표의 경우 60대에 접어드는 만큼 세대교체 대상자로 지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실적 자체로는 연임을 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다만, 분위기 쇄신 흐름이 있다면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임기간 거둔 실적은 연임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다”며 “실적 자체로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그룹 등 외부 시각에서는 세대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감안하면 연임이 가능하겠지만 혁신과 쇄신에 방점을 찍는다면 교체 흐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K오션플랜트, FPSO 선체 호주에 인도

7.8만t 규모… 바로사 필드에 설치

SK오션플랜트는 호주 바로사 지역에서 설치되는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선체(Hull) 1척을 고객사에 인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FPSO는 길이 359m, 폭 64m, 높이 31.5m, 총중량 7만8000t 규모다. BW오프쇼어(BW Offshore)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호주 바로사 필드에 설치될 예정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1년 4월 3477억 원 규모의 선체(Hull)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년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마쳤다. 특히 이번 FPSO 제작을 통해 우수한 공사 운영 능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SK오션플랜트는 적기 인도를 위해 선체 블록을 육상 도크에서 탑재하는 방식이 아닌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위에서 바로 탑재하는 방법을 확



경남 고성군 소재 SK오션플랜트 생산지에서서 호주 바로사 FPSO 선체(Hull)가 출항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용했다. 공장 부지를 FPSO 맞춤형으로 구성해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구성해 효율을 높인 점도 주요했다.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납기 준수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해양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

해외여행 열기에 운수업 승인금액 31% ↑

여신금융협 ‘3분기 카드승인금액’ 운수업, 전년대비 1조1200억 증가
숙박·음식점업은 1조3790억 늘어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여행 열기가 식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운수업 부문 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조1200억원 증가했다.

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올 3분기 운수업의 카드승인금액은 4조7300억원이다. 지난해(3조6100억원) 동기 대비 30.9%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도 12.3% 증가한 수치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3분기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청소 ▲방제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승인금액은 39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790억원 상승했다. 국내외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 등 해외여행 정상화 추세에 힘입어 관련 업종 매출이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분기 전체카드승인금액은 292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2.4% 올랐다. 이어 승인건수는 71억8000만건으로 6% 증가했다. 이중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41조8000억원이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0조7000억원이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년새 6.1% 오른 반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 감소했다.

/김정산 기자

한은 긴축기조에 2금융권 차주들 울상

시장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
저신용 차주 대출 축소 불가피
카드업계, 여전채 금리 주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2금융권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한 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당분간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美)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 또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영끌족을 향해 “저금리로 돌아갈 가능성 작다”며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과 반대로 시장금리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 및 자영업자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업권이 하나 둘 영업을 중단하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연 20%)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불법사금융 이용률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에서는 조달비용 증가폭에 따라 저신용 차주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내비치면서 2금융권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접어들면서 기업어음(CB) 등의 1년 미만 단기채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유동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여전채(AA+, 3년물) 금리상단은 연 4.89%였다. 여전채 금리가 연 4.8%를 초과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여전채 진정 전망은 어둡다. 최근 은행권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여전채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4분기를 시작으로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오는 12월까지 은행채 대비 비우량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1일 “올해까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채권이 쏟아지

면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3~4개월 후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금리가 일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카드사가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3~4개월 전 융통하기 때문이다. 4개월전인 6월 여전채 금리는 0.2%p 이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실제로 이달 국내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의 평균 금리는 연 18.54%다. 지난 9월(연 18.47%) 대비 0.07%p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카드론 금리는 0.1%p 떨어졌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협약

생보·손보·핀테크社 협약식 개최
각 회원사 대표 협의체 구성·운영

22개 생명보험사, 18개 손해보험사, 11개 핀테크사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운영한다.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해 주고, 소비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다.

협약식은 생보사·손보사·핀테크사가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협력 사항 등을 상호 약속하는 자리다.

협약에 따라 보험사 및 핀테크사는

상호 적극 협력해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2024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식을 주최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협약 체결에 앞서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통해 표준 API 명세서 등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의 준비 및 운영 관련 협의, 협약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회원사를 대표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생보·손보·핀테크협회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방식의 보험서비스를 확보할 것”이라며 “핀테크사는 보험상품 취급 등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LS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본격화… ‘CFE’ 힘 실는다

〈탄소배출 없는 전력〉

‘LS-LLBS’ 자회사 설립 완료
2차전지 양극소재 전구체 생산
전기차 분야 등 신사업 지속 발굴

LS그룹이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며 ‘LS CFE’ 전력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LS그룹은 최근 (주)LS 자회사로 ‘LS-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LLBS)’을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LLBS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신규 법인이다. 새만금 산단 5공구에서 2차전지 양극소재 전구체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6년 초부터 초도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LS는 최근 한국과 중국, 폴란드와 베트남 등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신설 회사가 세계 전구체 시장과 전후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판단이다.

LS는 LLBS를 통해 ‘비전 2030’ 핵심인 ‘CFE(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파트너’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는 구자은 회장이 취임 후 성장을 위해 선언



지난 8월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LS그룹 새만금 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

한 내용으로, ‘배전반(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다.

LS는 LLBS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 중이다.

LS전선의 차세대 전기 자회사LS머트리얼즈가 11월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 2016년 LS전선아시아에 이어 LS

전선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자회사 상장이다.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ltra Capacitor, U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형 UC 제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LS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중국에 이어 멕시코에 두번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올해까지

두랑고에 연면적 3만5000㎡ 규모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EV릴레이(Relay), BDU(Battery Disconnect Unit) 등 전기차 핵심 부품 양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지난 3월 출자사인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하며 EV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걸음을 디뎠다. 황산니켈은 차세대 전기차 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올해 10월에는 울산시 온산제련소 인접 9만5000

㎡ 부지를 활용하여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EVBM온산’에 67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LS MnM은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로 새만금에 4만톤의 컴플렉스 공장을 증설하여, 2029년에는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2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이다.

LS엠트론은 최근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국내 최초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를 선보였다. LS엠트론의 자율작업 트랙터는 별도의 조작 없이 전후진과 회전,작업기 연동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트랙터가 스스로 농사지를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를 통해 작업 시간은 17% 단축되고 수확량은 8% 증가하여 작업자의 편의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자율작업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지난달 3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사이토 다케시 에네오스 사장 (왼쪽에서 5, 6번째) 등 두 회사 경영진이 ‘경영진 회의’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왼쪽에서 1, 3, 7, 9번째) 강동수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부문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박상규 SK엔무브 사장,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에네오스, 경영진 회의

SAF·CCUS 등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맞손

〈지속가능 항공유·탄소포집 활용〉

‘탄소감축 실현’ 핵심과제 인식
기술 교류·프로젝트 공동 추진

SK이노베이션이 일본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에네오스(ENEOS)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정유, 화학, 윤활유 사업에서의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과 이를 위한 기술 교류,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의 미래 협력에 뜻을 모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양사 경영진이 지난달 3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경영진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의지를 다

졌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실현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앞서 김준 부회장과 사이토 사장은 올해 5월 만나 이러한 과제들이 두 회사는 물론 양국 에너지 업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양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경영진 회의에서는 TF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회사가 합의한 협력방안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

U에는 저탄소 에너지원 공동 개발, 석유제품 수급 및 설비 운영 협력을 통한 석유 사업 경쟁력 강화, 화학·윤활유 사업의 순환경제 및 탄소저감 추진과 관련한 신규 사업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MOU를 구체화하기 위해 두 회사는 지속가능 항공유(SAF), 탄소포집 및 활용(CCUS) 등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분야에서 역량과 기술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제네시스 신모델 ‘웹OS’ 공급

LG전자가 31일(현지시간) 미국 L A 투 캘리포니아 플라자에서 웹OS 콘텐츠 플랫폼의 GV80 탑재를 기념하고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고객경험 제공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2024년형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 신모델에

는 LG전자의 차량용 웹(webOS) 콘텐츠 플랫폼이 공급된다.

웹OS는 전 세계 2억 대에 달하는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다. LG전자는 TV에 적용하는 웹OS를 기반으로 차량 탑승객이 유튜브와 OTT 콘

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도록 차량 환경에 맞췄다.

제네시스 GV80 신모델은 차량용 웹O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주행 안전 규정에 따라 운전석과 보조석, 뒷좌석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에코프로, 美 네바다주 리튬광산 개발 추진

리튬업체 아이오니어 MOU 체결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호주의 리튬업체 ‘아이오니어(Ioneer)’와 리튬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국 네바다주 리튬 광산 개발을 추진한다.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와 제임스 캘러웨이 아이오니어 회장은 지난달 31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리튬 클레이에서 리튬을 추출해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연구개발(R&D) MOU를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오니어는 샘플과 기초적인 데이터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제공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기술 개발 과제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아이오니어는 북미에 수산화리튬 전환 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오니어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



지난달 31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열린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아이오니어간 MOU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제임스 캘러웨이 아이오니어 회장,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한 광산에 매장된 리튬 클레이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무상 제공하고 수산화리튬 생산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사업을 협력할 방침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측은 “아이오니어가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을 기술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리튬 전환 공정에 대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탭 A9+’ 국내 출시

A 시리즈 최초 5G 모델 선보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A9+(사진)’를 국내 출시한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탭 A9+’는 278.2mm 크기의 스크린에 최대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부드럽고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과 함께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의 음향 기술이 적용된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여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갤럭시 탭 A9+’는 7,040mAh(정격

용량 682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했다. 스토리지는 64GB가 탑재됐으며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갤럭시 탭 A9+’은 Wi-Fi 모델과 갤럭시 탭 A 시리즈 최초로 5G 모델이 출시된다.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이 36만 8500원, 5G 모델이 41만 8000원이다.

/허정윤 기자

최대 400만원 할인·무이자 할부… 車업계, 연말 ‘고객잡기’

완성車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대목 앞두고 ‘판촉 경쟁’ 드라이브
공식 축제기간 포함 한 달 동안 진행
현대차, 코나·그랜저 등 23개 차종
기아, K5·카니발 최대 7% 혜택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최대 쇼핑 축제에 쏠리는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차량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내수 부진을 겪는 완성차 업체들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판촉 경쟁에 나선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KGM모빌리티, 르노코리아가 코리아세일 페스타를 기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공식 개최 기간은 11~30일까지 20일이지만 업계는 공식 축제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르노코리아.

현대차는 전기차 3종을 포함한 승용·RV(레저용 차량) 21개 차종 2만 3000대, 상용 2개 차종 1500대에 대한 할인을 진행한다. 주요 차종별로 캐스퍼 최대 17%, 코나 최대 200만원, 팰리세이드 최대 10%, 그랜저 최대 400만원, 제네시스 G80 최대 10%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상용 차량은 파비스

최대 500만원, 마이티 최대 400만원 할인된다.

전기차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EV 세일 페스타’의 제조사 할인 혜택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200만원 증가된다. 아이오닉 5 최대 600만원, 아이오닉 6 최대 600만원, 코나EV 최대 400만원의 구매 혜택이 제



현대차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

공된다.

기아는 K5(하이브리드 포함) 최대 7%,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 포함) 최대 7%, 봉고EV 최대 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물량은 3개 차종을 합해 6000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EV 세일 페스타’의 제조사 할인 혜택도 이번 축제를 맞아 추

가 할인을 이어간다고 했다. EV6 최대 420만원, 니로EV, 니로 플러스 최대 700만원 할인된다.

KGM모빌리티도 11월 중 차량을 구매했을 때 KG M포인트를 준다. 더 뉴 티볼리(에어 포함) 최대 300만 포인트, 코란도·토레스 최대 50만 포인트, 렉스턴 뉴 아레나 최대 200만 포인트, 렉스턴 스포츠칸(쿨멘 포함) 최대 15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도 2024년형 QM6 최대 390만원, 2024년형 XM3 최대 210만원, SM6 TCe 300 최대 44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르노코리아 11월 판매 조건의 특징은 고객이 선호하는 할인 조건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 선호에 따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 할인을 미리 적용 받아 현금 또는 할부 구매하거나, 0.9% 초저리 혜택을 적용해 차량을 할부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U+, AI 3대 서비스로 5000억 시장 공략

AICC 서비스 등 B2B 시장 정조준 “B2B 플랫폼으로 시장 선도할 것”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플랫폼(AI CC) 서비스와 소상공인 AI 솔루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용(B2B)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AICC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AICC 온프리미즈(On-Premise), 유플러스 AICC 클라우드, 우리가게 AI 등으로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공략한다고 1일 밝혔다.

챗GPT로 AI가 전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AICC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AICC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해 2030년에는 약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뚜렷한 선도사업자가 없는데다 공공기관·금융·보험사부터 유통, 병원, 여행 등 적용 범위가 방대해 ‘황금알’ 시장으로 불린다.



LG유플러스가 대기업 주요 타겟으로 한 ‘유플러스 AICC 온프리미즈(On-Premise)’, 중견·중소기업을 중점으로 한 ‘유플러스 AICC 클라우드’,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가게 AI’ 등 AI 3대 서비스로 역량을 집중해 B2B 시장을 공략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특히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유무선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AICC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AI 역량을 AICC에 집중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

과 LG CNS와 ‘원-LG AICC’를 구축하고 LG그룹사 AI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엑사원 2.0과 협력해 AICC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에는 자체 개발한 익시젠(Exi-GEN)도 선보일 계획이다.

익시젠은 LG유플러스의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대형언어모델(LLM)로, 향후 B2B AI 사업의 중추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 LLM이 구축되면 AICC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다수의 콜센터 인프라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통해 고객센터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다져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룹사 AI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B2B AI 플랫폼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인니 新수도 ‘스마트시티’로 만든다

사이버 보안 등 ICT 기술 활용

KT(대표 김영섭)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Telkom)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구 과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의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신수도인 누산타라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국의 민관 협력 수주지원단인 국토부 ‘원팀코리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KT는 이번 MOU를 통해 KT의 스마트 시티, 양자 암호통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ICT 기술과 인도네시아 유무선 1위 통신사업자인 텔콤의 고객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합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컨설팅을 통해 신수도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왼쪽)과 리잘 악바르 텔콤 신수도 태스크포스장(오른쪽)이 30일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시티 사업 확산에 대해서도 공동 TF를 만들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은 “흘러져 있는 도시 데이터를 분석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 IT부문 집중 채용… SDV 전환 가속

IT관리·SW 아키텍트 등 총 27개 분야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체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IT 전 부문에 걸쳐 집중 채용 기간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채용은 경력직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현대차그룹의 SDV 비전 아래 IT 우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한 차

원이다.

채용 분야는 총 27개로 ▲IT 관리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자 ▲모바일 App 개발 ▲SW 아키텍트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이다.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 직무 등 세부 사항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SDV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역량 있는 IT 인재를 적극 모집함으로써 자체적인 IT 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모바일 및 커머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고객 관리 채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IT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제작, 생산, 판매, 운행, 중고 거래 등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차량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는 IT 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도 갖추고 있다. 특히 수평적이고 유연한 업무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집중 채용 기간은 평소 현대차 채용에 관심있던 우수 인재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SK가스,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

SK가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시행하는 ESG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1일 SK가스는 SK가스는 올해 환경, 사회 A+ 등급, 지배구조 A 등급을 획득해 통합 A+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K가스의 등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A+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됐다. 올해 평가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사 중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19개사로 상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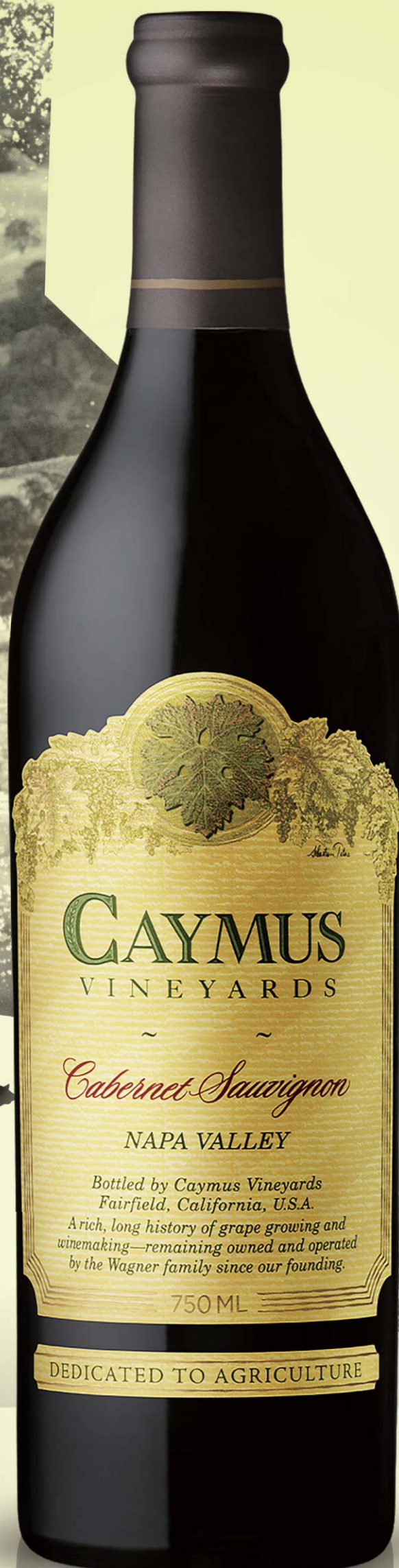
에 해당한다.

SK가스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TCFD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위기·기회 요인, 재무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사 안전과 인권향상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하정운 기자 zelkova@

나파 카버네 소비뇽의 제왕 케이머스



N A R A
C E L L A R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증시침체 앞친데, IB 부진 덮쳐 증권사, 올 ‘1조 클럽’ 사라지나

〈영업이익〉

미래에셋 등 5대 대형 증권사
올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4.3조

‘실적부진’ 전년대비는 38%↑
한국투자, 그나마 1조클럽 가능성

증시 침체와 투자은행(IB)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증권사는 단 한 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여러 악재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증권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 등 5대 대형 증권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3456억원으로, 지난해(3조1373억원)보다 38.51% 증가했다. 5대 증권사는 증시 호황에 힘입어 2021년에 각사마다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증시 침

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밀돌았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1조원을 넘어서는 증권사는 전무하거나 한국금융지주 한곳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1조157억원으로 1조 클럽에 간신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9344억원, 키움증권은 842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1조 클럽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7999억원, 7531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925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던 메리츠증권도 올해 1조클럽 입성에 실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메리츠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이 7299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초만 해도 하반기에 증권업황 회복을 예상했으나 증권사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실적 전망도 어두워졌다. 올 상반기에 이

어 하반기에도 부동산 PF 등으로 대거 적립된 총당금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 중동 전쟁, 주가조작 사태 등으로 증시 거래대금도 정체되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적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 금융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투자중개 부문의 실적도 유의미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며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로 기업금융 및 투자, 부동산금융 시장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증권사 IB 부문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부동산금융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사는 국내 부동산PF에 대한 손실 부담이, 대형사의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 부담이 손익과 재무구조에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M&A로 실적반등 노린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부진을 털고 상승하고 있다. 1일 코스피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6.57% 오른 13만4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를 연속 상승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전망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주가는 18만원까지 올랐다.

아모레퍼시픽은 31일 공시를 통해 코스알엑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잔여 지분 28만8000주를 7551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지분 93.2% 코스알엑스 자회사 편입
주가 6.57% 올라 13만4700원 마감
증권사 목표주가 18만원으로 상향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1년 9월 코스알엑스의 지분 38.4%를 취득했다. 당시 잔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받았고, 이번에 해당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의 지분 93.2%를 보유하게 된다. 2013년 설립된 코스알엑스는 민감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로, 최근 3년연간 연평균 6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 개 국가에 진출하며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코스알엑스의 인수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부진을 털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아모레퍼시픽이 코엑스알엑스를 자회사로 편입



코스알엑스 어드밴스드 스네일 라인.
(/아모레퍼시픽)

시키며 내년부터 매출이 당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B증권은 박신애 연구원은 “내년 5월부터 지분율이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아모레퍼시픽의 내년 지배순이익을 13%(345억원) 상향하고 2025년 지배순이익을 17%(555억원) 상향한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했다.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은 “코스알엑스는 기능성 스킨케어 등 시장성 있는 제품군으로 올해 상반기 북미와 아세안에서 각각 161%, 162%씩 성장했다”며 “향후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시장 확장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메리츠증권은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를 18만원까지 상향했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숫자다.

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러면서 “채널 조정과 지역 확장을 통해 중국 없이도 돈 버는 사업 구조가 다져졌다”며 “코스알엑스 연결 편입에 따른 실적 개선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의 기대도 한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영풍제지 90% 폭락… 키움증권 손실 눈덩이

닷새째 하한가… 5720원에 마감
키움증권, 미수금 등 손실 4000억

영풍제지 지분 45% 보유 대양금속
담보권 실행, 1400만 주 처분키로

영풍제지가 닷새째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거래 정지 이전 대비 80%가 넘게 폭락했다. 하한가에 매도잔량이 여전히 쌓여있는 가운데 대규모 미수금을 안고 있는 키움증권의 손실 역시 이미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전일 대비 29.99% 하락한 5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는 지난달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19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미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 중이었던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조치에 나섰고,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및 체포 등이 진행된 이후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정지 이전 3만3900원이었던 주가

〈영풍제지 하한가 경우별 키움증권 손실액 추정〉
(단위=원·억원)

회수	영풍제지 주가	회수가능액	손실액
0	33,900	5,767	0
1	23,750	4,037	906
2	16,620	2,826	2,117
3	11,630	1,978	2,965
4	8,140	1,385	3,558
5	5,700	969	3,974

/자료=다올투자증권

는 26일부터 닷새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83.1%나 급락했다. 18일 하한가까지 더하면 6일 연속 하한가로 4만8400원이던 주가는 90% 가까이 빠졌다.

문제는 하한가 행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가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고, 최대주주의 담보 물량까지 쏟아질 것으로 공시된 상태다.

이날 거래량이 다소 늘었다고 해도 50만주가 채 되지 않았지만 하한가에 쌓인 매도잔량만 무려 2878만주다.

이와 함께 영풍제지 지분 45%를 가

지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은 지난달 30일 주식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 규모는 1479만1667주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으로 장중 매도한 영풍제지 주식은 지난 30일 600주, 31일 2000주다. 아직 전체 주식수의 30% 안팎의 물량이 매도 대기중이란 얘기다.

키움증권의 손실도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약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 행진을 지속하면서 회수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올투자증권이 키움증권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영풍제지 주가가 5일 연속 하한가로 5720원까지 낮아지면 회수가능액은 969억원이며, 키움증권의 손실이 3974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와 각 2건의 태양광 재생에너지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해 나가며 재생에너지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VPPA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체결한 고정계약가격에서 시장전력도매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RE100 이행 수단이다.

/안상미 기자

미래에셋증권, 태양광 가상전력 구매

피브이에너지와 구매계약 체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6일 피브이에너지 주식회사와 3MW 규모의 태양광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심화되는 지구온난

화 이슈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 국내 금융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가입을 완료했고, 2025년까지 100% 이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썬썬에너지’ 및 브라이트에너지와 트너스 설립 합작법인인 ‘페타파워(썬

6일 블룸버그 공동개발 등 5종 지수 발표

한국거래소, 시장상황 대응 일환 공급

한국거래소가 ‘KRX Bloomberg 공동 지수’ 2종과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자동화기기(ATM) 지수’ 및 ‘시장대표선물 0.5배 지수’ 2종 등 총 5종의 지수를 오는 6일에 발표한다.

거래소는 1일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수요도 고도화됨에 따라 각각의 시장 상황과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전략지수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한다고 알렸다. 특히 이번에는 글로벌 정보사업자이자 지수사업자인 블룸버그의 최신 선진 방법론을 도입해 전략지수 2종을 공동 개발했다. 위클리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 및 시장대표지수에 대한 소수점 배율 투자전략 등을 반영한 전략지수 3종도 자체 개발했다.

‘코스피 200 스마트 크루즈 지수’는 코스피 200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내재변동성 지표를 활용해 지수의 상승 예측 시에만 추종배율을 1.3배로 전환하는 지수로, 추종배율이 고정된 기존 레버리지 지수와 달리 이를 동적으로 변환해 지수 상승 시 초과수익을 추구하고, 지수 하락 시에는 음의 복리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반영했다. 이 지수는 2016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대비 20%, 레버리지 지수 대비 35%의 초과수익



한국거래소 전경

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200 베이 채권 혼합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지수와 블룸버그의 한국 단기채권 지수를 4대6 비율로 혼합한 멀티에셋 지수로, 약세장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투자전략을 반영했다. 이 지수는 2019년 이후 지수 수익률 비교 시 해당 기간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코스피 200 지수, KTB 지수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나, 코로나 19에 따른 주가 급락, 최근의 주식시장 하락 기간 등에는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는 위클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 매주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배당가능 수익을 확보하는 단기 커버드콜 전략 지수다. 월간 단위로 옵션을 매도하는 기존 지수와 달리 위클리 옵션을 월 8회 매도하면서 프리미엄 수익을 확대해 최근 증가하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수요에 대응하는 지수로 개발됐다.

/신하은 기자

소셜벤처 선배 노하우 ‘쑥’… 소통·아이디어 공유로 ‘함께 성장’

현장르포

벤처協 ‘소셜벤처 밋업 페스티벌’
선·후배 창업가 네트워킹 자리 마련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 등 강의
이정민 총장 “스타트업 도전 응원”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라.”

10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 월드 사파이어 볼룸, ‘소셜벤처 밋업(meetup) 페스티벌(festival)’ 메인 행사장에 100여 명의 소셜벤처 대표, 관계자들이 소셜벤처 선배 창업가인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의 강연을 숨죽이면서 듣고 있다.

창업진흥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벤처기업협회가 준비한 이날 행사는 소셜벤처 창업 선·후배들이 모여 소통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다.

행사에선 김 대표 외에 선배 창업가인 월간계란 주여달 대표,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한승민 대표도 강연자로 나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로 창업 4년차를 맞은 파워플레이어는 ‘온그리디언츠’라는 브랜드로 스킨케어, 헤어·바디용품, 향수 등 유기농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다. 현재 4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파워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소셜벤처 밋업 페스티벌’에서 선배 창업가들이 토크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에잇블룸 황현우 대표, 월간계란 주여달 대표,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한승민 대표,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 /벤처협회

플레이어는 친환경, 비건, 제로웨이스트 등을 추구한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UAE, 인도, 러시아 등 수출국만 17개국에 달한다. 수출국은 올해까지 28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표는 “해외에 나갈때 정답은 없다. 당장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절반 가량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 같다. 무조건 (지원사업에) 신청해라. 우리는 작년에만 약 300개 정도의 지원사업에 서류를 넣었다.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원서를 쓰면서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고 조언했다.

언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신청과 본업을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도 나왔다.

주여달 대표는 “지원사업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지출을 증빙하고 결과서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가 만만치는 않은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일이 본업과 불일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원사업은 많이 신청해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라. 많은 창업가들과 인맥을 쌓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대표가 2020년 창업한 월간계란은 판매하는 계란의 10%를 쪽방촌, 그룹

홈 등에 기부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창업 초기 1곳으로 시작한 월간계란의 기부처는 현재 9곳으로 늘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창업을 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3년 정도는 본인 급여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워라벨은 생각하지 마라. 친구, 가족, 연인을 만날 시간도 없다.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마라”고 강조했다.

한승민 대표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2~3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그 절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다. 목표는 크게 잡아라. 그리고 고민을 했다면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창업을 했다면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버티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대표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다 창업을 한터라 실매출을 일으키고 매달 얼마라도 돈을 꼭 남겨야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팀빌딩(team building)을 한다거나 투자유치에 집중하지만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보수적으로 운영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버티기만 하면 안된다. ‘착한 기업’을 지향하는 소셜벤처도 돈을 벌어야 한다.

한 대표는 “초기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은 사업이 진심인 멤버를 중심으로 최소화해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수익이 나면 투자자를 찾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선배들의 응원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된다.

주 대표는 “올 한 해를 꼭 살아남길 바란다. 한 해, 한 해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챌린지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MYSC 유자인 부대표의 ‘소셜벤처의 개념과 중요성 및 생태계 현황’, 임팩트스퀘어 정성훈 심사역의 ‘임팩트투자 동향과 투자유치방법’에 대한 강연도 펼쳐졌다.

또 입구에 마련한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선알스퀘어, 플랫팩토리, 밴아베너, 퍼블러스, 디엑스코드, 이즐리독, 지구는푸르다, 스페이스인, 에이드올, 마치란테, 테이렌, 아티스트아우라, 넥스트커넥트가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발길을 잡았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지금이 창업 적기”라며 “협회는 창업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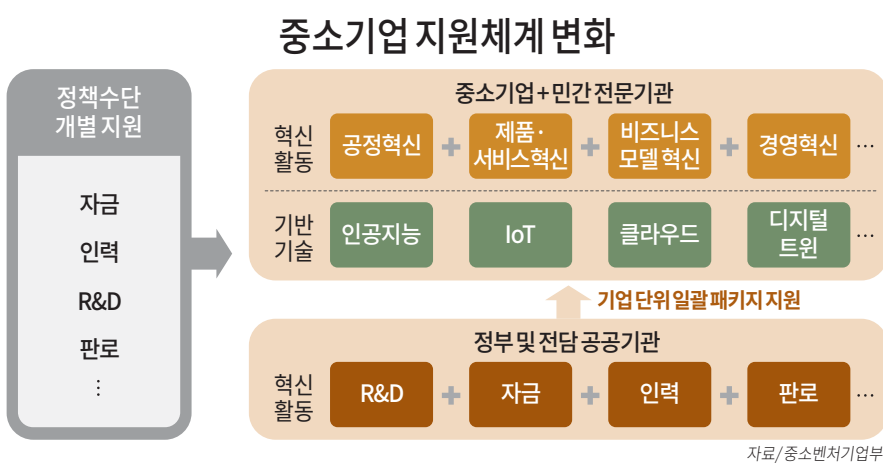
생산성 혁신기업 3000곳 육성… ‘원패스’ 프로그램 도입

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중소 가치사슬 혁신 지원체계 구축
정부 승인 거쳐 정책수단 일괄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 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설비자금,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마련한 중견기업 통상현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견련
중견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중동·인도시장 진출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최근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국으로 부상한 중동과 인도 시장 진출 확대 전략 모색에 나섰다. 중견련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동·인도 시장 진출 비즈니스 전략’ 주제의 올해 제2차 중견기업 통상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동 시장 진출 전략, 중동 프로젝트 법적 이슈 대응 방안, 인도 시장 진출 전략 등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코트라(KOTRA) 홍창석 아시아중아팀장은 ‘중동 시장 트렌드와 한국 진출 전략’ 발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기가-메가급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중동 시장 동향과 기회 요인 등을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BIRD 프로그램 20억 보증투자

48개사 중 넥스젠파워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 선정기업에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연구개발(R&D) 융자연계 BIRD 프로그램에 선정된 48개사 중 넥스젠파워를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해 기보가 직접 투자,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보는 BIRD 프로그램 1단계 선정기업을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으로 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부산시에 ‘中企 현안과제’ 전달

3개 분야, 17건 건의과제 담아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산시에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제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응원 등불’을 전달했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 등은 이날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시장에게 이를 전했다.

이날 전달한 현안과제는 중기중앙회가 부산지역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합

계 현안을 논의해 수립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분리발주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 협업 촉진(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뒷받침(중소기업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 3개 분야, 17건의 건의과제를 담았다.

/김승호 기자

산업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매주 산업현장 방문한다

‘산업부 기업동향대응반’ 운영
장·차관, 불금 간담회 등 통해
산업 정책·규제 혁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전 직원이 매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1월부터 산업부 전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대응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이 수차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책임부처로서 장관부처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현장 방문, 기업 미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전 장·차관은 업종별 릴레이식으로 열리는 ‘불금 간담회’와 ‘일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기업 최고 경영자급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실·국장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업종별 기업과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장·실무자는 격주 수요일을 ‘현장 방문의 날’로 지정해 현장방문·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발굴과 해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 현장애로 발굴·해소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와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정기(분기 1회)로 현장 애로를 발굴한다.

소관 부서·담당자 지정, 산업부 1차관 중심의 ‘현장으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필요시 경제규제혁신전담반이나 국정현안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산업부 기동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 정책, 규제 혁신을 추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과학원, 미세플라스틱 대응안 모색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일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에 위치한 씨마크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선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석, 분포특성 및 위해성’에 대한 중점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일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행사는 1·2부로 나뉜다. 1부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동향 및 분석, 2부는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국내외 전문가 8명이 미세플라스틱의 최근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이 ‘플라스틱 국

제협약 협상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윈 카우거 미국 무어 플라스틱오염연구소 박사의 ‘먹는 물 미세플라스틱 자동 분석’과 관련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티모시 간트 영국 보건안전국 교수가 ‘세포 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전문가들 발표에 이어 청중들이 함께 참여해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포특성 및 위해성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환경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립생태원, 세계 생태계 보전 선도

창립 기념식·국제 학술토론회

국립생태원이 오는 2~3일 이틀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주년 기념식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유튜브(검색어: 국립생태원)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립생태원은 기념식에서 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10년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다.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 연구·전시·교육 전문기관으로 매년 약 6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 2일 오후부터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국제 학술토론회

(심포지엄)가 열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관측(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세션1) △생태정보: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세션2) △생물다양성의 강화-보전과 복원(세션3) 등이 주요 토론 과제다.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아나 마리아 에르난데스 살가르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전의장, 트레버 샌드위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 등이 발표·토론자로 나선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는 국립생태원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 자연생태 공공기관에서 세계 생태계 보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정황근 장관, 네팔서 농축산 협력 강화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부터 3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우리 농식품부 장관의 첫 네팔 방문으로, 정 장관은 네팔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의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네팔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네팔의 고위급 관계자 면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벌인다.

네팔은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며 농가소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 기술 전수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2023년 3월 중에 108

마리의 젖소를 보내는 등 네팔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

특히 네팔은 낙농업 발전과 벼 품종 개량, 인적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번 정 장관의 네팔 방문이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관계를 긴밀히 하고 농축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 만에 식량과 젖소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듯이, 한국의 농축산업 발전의 경험과 기술을 네팔에 지속 전수하여, 네팔의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업인력공, 美·日 현지기업 취업 박람회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2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취업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청년들이 대상이다.

행사에는 일본(23개 기업)과 미국(6개 기업) 등 11개국 43개 기업이 참가해 청년 32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은 행사장에서 해외취업 설명회와 해외취업 상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 취업준비특강 ▲국제기구 진출 및 위클리리데이 설명회 ▲이력서 및 면접준비 특강 등을 지원한다. 상담관은 ▲국가별 해외취업 상담 ▲면접·이력서 컨설팅(영문 및 일문) ▲영어 원어민 일대일 면접 코칭 등을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제한 없이 체험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월드잡플러스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 행사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의 해외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고용노동부·부산시가 주최, 공단·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 렘피스킨병 400만 마리 분 백신 배부

중수본 “확진 사례 74건으로 늘어”

국내 소 렘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1일 오후 모두 74건으로 늘었다. 당국은 긴급 수입한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 단위까지 배부했다.

렘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확진 사례가 충남 당진과 서산에서 추가돼 전날보다 4건 늘어난 74건이라고 밝혔다.

농장 74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되는 소는 5077마리다.

중수본은 또 약 400만 마리분의 렘피스킨병 백신을 긴급 수입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를 완료했다.

지난달 19일 충남 서산에서 렘피스킨병이 국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두었던 백신 약 54만 마리분을 신속히 공급하여 발생농장 인근 소 농장에 긴급히 접종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약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로 긴급 수입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소 사육 농가는 백신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접종 방법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방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므로, 농가에서는 제품 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KYO
WON 교원

wells



가지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나의 감성 레시피

FLORIN



부산시, 권역별 5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산업으로 확장

산업 포트폴리오, 멜팅팟 육성
마운틴밸리·수영강벨트 등
기장군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혁신 지속해 나갈 것

부산의 산업지도가 해방이후 지속
돼 온 서부산권 제조업과 동부산권인
해운대·센텀의 관광·정보통신(IT) 산
업 구조에서 동부산-원도심-서부산
곳곳에서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한 미
래산업 혁신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
확장되고 있다고 부산시가 1일 분석,
발표했다.

시는 권역별 5대 혁신클러스터를 조
성하고 산업 포트폴리오를 신산업의
멜팅팟(Melting Pot, 융광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산 전역에 새롭게 그려지는
미래 핵심 신산업을 5대 혁신클러스
터로 설명했다. 동부산의 마운틴벨
리, 수영강벨트, 원도심의 스타트업



부산시청.

벨트, 부스트벨트, 서부산의 낙동강
벨트가 그것이다.

동부산권은 기장군 쪽으로 북동진
하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부산
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함
과 동시에 디지털 혁신도 지속해 나가
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사선의과학·이-파크(E-Park)
산업단지들을 시는 '마운틴 밸리'로
명명했다. 이곳은 금양, 에스티아이

등 우수기업의 신산업 투자가 이어지
고 있으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4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산단으로 탈
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방사선의과학산단은 전력반
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8000
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등 7조원 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화상태에 있는 센텀시티로부터
시작해 유니콘타워와 센텀2지구를 잇

는 '수영강 벨트'는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등 기존 정보통신기술(IC
T) 산업의 고도화와 센서·로봇 등 디
지탈 하드웨어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면-문현-북항-영도를 잇는 원
도심권은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청년
창업 특화 공간이자, 스마트 금융과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 시는 밝혔다.

서면·부산역·북항을 잇는 지역에는
'스타트업 밸리'가 구축되고 있으며,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창업타운',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청년창업 디
지탈 허브 조성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는 설명이다.

이같은 신산업 지도 개편은 지산학
협력브랜치 68곳을 중심으로 한 우수
한 인재 양성이 뒷받침 돼 활력을 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교육청

포항·구미도서관 건립 나서

포항·구미도서관 건립사업이 교육부-행
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북교육청은 27만여 명의 포항시 북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칭)경상북도교
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으로 1990년 개관한 영
일도서관의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지진
피해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안전 문제를 해소
하게 됐다.또, 건립 예정지 반경 2km 이내
12개의 학교와 3만 6000여 세대의 인구 밀집
지역에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 남구-동명대

봉사단과 치매사각지대 해소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 남
구와 동명대학교의 아름다운 동행이 결실을
보고 있다. 동명대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으로 구성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동치미'
가 어르신 맞춤형 전문봉사단으로 다양한 나
눔을 진행하고 있다.이들은 맞춤형 사례 관
리 대상 어르신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해 월
2회 안부 확인, 인지재활 프로그램, 말벗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일파티지원단은
월 2회 방문해 '함께여서 행복한 생일'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선물 전달하기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전남도

“전남에서 일·휴가 동시에 즐기세요” 블루위케이션 시범사업 본격 운영

전남 대표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여수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전남도가 천혜의 섬·해양·산림 자
원과 맞닿은 남도음식을 결합한 '전
남블루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다. 위케이션은 일(Wokr)과 휴가(V
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전남블루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
한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
정식 운영 세부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
하고 전남 대표 융복합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지난 9월 시.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여수시가 위케이

션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위케이션 흥
보.유치를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산
단 입주기업협의체, 호텔 등과 협약
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범 프로
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전남블루 위케이션은 '수요자맞춤
형'과 '테마별 맞춤형'으로 나눠 운영
한다.

수요자 맞춤형은 엠지(MZ)세대를
 겨냥해 도심형과 40~50대 가족중심
형으로 준비했다.

테마 맞춤형은 지역 인기 관광지와
미식, 레포츠 등을 즐기는 관광지형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
을 병행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
G)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14년 만에 해제

상인들, 상권 회복 기대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
부 구간이 14년 만에 해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정된 구간은 중
앙로 북편구간인대구역네거리~중앙
네거리 0.45km다. 그동안 시내버스외
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1일부
터 모든 차량 통행이 허용됐다. 중앙

로 남편구간인 반월당~중앙네거리
0.6km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날 오후 1시께 대구시 중구 대중
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통행 재개
소식에 상인들은 환영 현수막까지 걸
어가며 기쁨을 표현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구간 해제
소식에 상인들은 상권 회복을 기대하
는 분위기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대, 3D 바이오프린팅 인공피부 제작

대량생산으로 동물실험 대체 가능

동물권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피부
제작에 성공해 동물 실험을 대체할 피
부 모델 연구 전망이 밝아졌다. 부산
대는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
합공학부 김병수 교수팀이 포항공대
와 중국 베이징 이공대와와 공동 연구
를 통해 3D 바이오프린팅을 통한 피
부 표피층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1
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바
이오프린팅 기술로 피부 각질층이 구
현된 인공피부 구조체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오프린팅'은 살아있는 인공조
직을 실제와 같은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인공피부 제조에는 각질세포를 피
부 위에 단일 층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연구팀은 이를 위해 각
질세포를 포함하는 젤라틴을 바이오
잉크(3D 바이오프린터를 통해 분사
되는 재료의 통칭)로 사용했다.

연구팀은 체온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화하는 젤라틴의 특성을 이용해 프
린팅 과정에서는 젤 형태가 유지되도
록 온도를 낮게 유지해프린팅하고, 프
린팅 후에는 인공피부를 37도에서 배
양해 젤라틴이 녹아 없어지도록 했다.
즉, 젤라틴은 녹아 없어지고 각질
세포로만 이뤄진 단일 층이 피부 위에
남게 돼 인공피부 모델의 핵심인 각질
화 된 표피층 재현이 가능해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 선정

생활거점 2개소·활력공간 11개소

경상남도(도지사박완수)는인구감
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
계정 투자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생
활거점' 2개소와 '지역활력공간' 11개
소를 선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부
터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금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
공모를 통한 지역생활거점 중심의 투
자모델을 발굴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시군의 공동과제사업을 추진하
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시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한 전문가들의 사전 컨설팅과 함께 외
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하여, 공정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기
금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에 따라 최대 3년간 안정적으로 기금
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은 시군이
보유한 자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
자리·주거·생활서비스의 선순환이 가
능한 생활속 활력공간을 만드는 사업
이다. 2024~2026년 3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되며, 통영시의 '통영영 수
국(水國) 프로젝트'와 함양군의 '함양
사계 포유(for you)'를 선정하였다.

고유자원과 유류공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군에서는 추진방향에 맞춰
사업을 구상하여 제출하였으며, 도에
서는 평가를 통하여 11개소 사업을 선
정하였고, 개소당 최대 5억 원의 사업
비를 2024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광주시

내년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
하는 한편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
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리프트가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시행 규칙에 따라 시는 전용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도입 기
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
입, 법정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아토피 자녀에도 OK! 진짜 재료로 아이들 입맛 잡아요”

하림,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김홍국 회장, 엄마·아빠 직원 개발
즉석밥 3종·라면 4종 등 24종 출시

합성첨가물 없이 자연재료로 맛 내
성장·발육 맞춰 영양학적 제품 설계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를 론칭하며 가정간편식(HMR) 카테고리를 확장한다. 국내 HMR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하림은 1일 오전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품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를 알렸다.

이날 하림 김홍국 회장과 엄마아빠 직원들이 직접 연구·개발해 만든 즉석밥 3종, 라면 4종, 국물요리 5종, 볶음밥 5종, 튀김요리 5종, 핫도그 2종 등 신제품 24종을 소개했다.

국내 키즈 산업 시장은 규모가 해마다 성장하면서 ‘골드키즈’ 시대로 접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일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국내 최초 어린이식 전문 브랜드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들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어린이 전용 HMR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하림은 영유아식과 유사한 고품질 식재료에 성인식에 뒤지지 않는 맛 퀄리티를 추구하는 스마트한 엄마아빠와 어린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어린이식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21년 아토피를 앓았던 막내딸을 위해 첨가물이 없

는 ‘더미식(The미식) 장인라면’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푸디버디’를 론칭했다.

김 회장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로 팀을 꾸려 만들었다”며 “나트륨이나 인공조미료, 가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재료로, 제대로 된 맛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품은 합성첨가물이 없이 가장 신선한 자연 식재료로 맛을 내는 하림의 식품철학의 원칙을 준수했다. 100% 국내산 유기농 쌀과 싱싱한 국내산 생채소, 신선한 한우와 국내산 생계육·생돈육, 고품질 미역 등 지역 특산물까지 고품질의 원료를 아낌없이 넣었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 영양사를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맞춘 영양학적 제품 설계까지 강화했다.

즉석밥의 경우 시중 제품 대비 수분 함량이 5% 높아 식감이 부드러우며 많이 씹지 않고 삼켜도 소화에 부담이 없다. 라면은 한 입에 꼭 빨려 들어오는 얇은 면을 구현했으며,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으로 생면의 식감을 살렸다. 미니돈까스와 치킨까스는 과일애플 푸레로 숙성해 육질이 부드러우며 신선한 식빵을 그대로 갈아 만든 생 빵가루로 튀겨 첫 입부터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하림은 ‘닭고기 회사’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종합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HMR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미식 장인라면’의 경우

국민 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기용해 활발한 마케팅을 벌였지만, 개당 2000원을 넘는 소비자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에도 하림은 즉석밥을 비롯해 국·탕·찌개 등을 부지런히 출시했다. 지난 3월에는 코리안 스트릿푸드 브랜드 ‘멜팅피스’도 론칭했다. 역시 고품질을 강조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하림의 고가, 고품질 전략이 고물가 시대에 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미식 장인라면’은 출시 직후 두 달여간 500만방 이상의 판매를 올렸지만, 신제품 출시 효과였을 뿐, 현재 시장 점유율은 1% 내외다. 즉석밥 점유율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3월 선보인 ‘더미식 백미밥’의 시장 점유율은 5%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하림산업의 영업손실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8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279억원 이상 커진 것이다. 지난해 매출이 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7%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매출의 두 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 리빙 트렌드 제안… 24개 명품 브랜드 선봬

압구정 본점에 ‘하이엔드 리빙관’ 몰테니 앤씨·모로소 등 매장 유치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지하1층에 세계적인 명품 리빙 브랜드 20여 개를 한데 모은 ‘하이엔드 리빙관’이 들어선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구정본점 지하1층 리뉴얼 공사를 마무리하고 고품격 리빙 트렌드를 제안하는 ‘하이엔드 리빙관’을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엔드 리빙관’은 영업면적 약 1155㎡(350평) 규모로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비엔비 이탈리아’, ‘몰테니 앤씨’, ‘모로소’ 등 총 24개 명품 리빙 브랜드를 선보인다.

먼저, 고가의 명품 가구, 조명, 욕실 브랜드 상품으로 공간을 채운 하이엔



현대백화점_압구정본점 ‘빌라일두오모’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드 리빙 편집숍 ‘빌라 일 두오모’를 선보인다. ‘빌라 일 두오모’는 실제 생활 공간 같은 하이엔드 콘셉트 하우스로 거실, 주방, 욕실, 침실 등 네 가지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방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독일 하이엔드 키친 브랜

드 ‘불탑’, 거실은 이탈리아 명품 가죽·가구 브랜드 ‘폴트로나 프라우’ 소파 등으로 꾸며졌다.

이 외에도 럭셔리 가구 브랜드 ‘놀’, 고급 조명 브랜드 ‘아르테미데’, ‘플로 스’, 명품 욕실 브랜드 ‘안토니오루피’,

/신원선 기자

베트남서 ‘빠빠로’ 인지도 확대 캠페인

롯데웰푸드, 팝업·옥외광고 등 진행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빠빠로 데이를 앞두고 베트남 시장에 ‘빠빠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옥외광고, SNS, 주요 유통사를 통한 빠빠로 전용 매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빠빠로가 가지고 있는 ‘선물’과 ‘나눔’의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먼저, 베트남에 빠빠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호치민 1군 로터리에 옥외광고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설치했다. 호치민 1군은 관광지와 금융 및 외국계 회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광화문과 비슷하다. 출퇴근 유동인구와 관광객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한 옥외광고로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호치민 10군(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반한(Vanhanh) 쇼핑몰’에 빠빠로 데이 문화 체험이 가능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빠빠로데이를 포함한 10월말부터 2주간 운영하며 오픈 4일 간 누적 방문객수 약 1만2000명을 돌파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유통사들과 함께 빠빠로 전용 매대를 설치해 10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식신 가입 후 리뷰 등록뎌 커피 드려요”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 진행

푸드테크 기업 식신은 맛집 서비스 ‘식신’의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11월 한 달간 식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후 첫 리뷰를 등록한 회원 전원에게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아이폰15프로를 증정한다.

꼼꼼한 후기를 남긴 회원들을 선발해 ‘SIKSINER(식시너)’로의 등급상향도 추진한다. 높은 등급의 회원들이 작성한 리뷰는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며 리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뉴스 생성 등을 통해 광고 수익이 배분될 예정이다. 뉴스 버전의 ‘유티브’인 셈이다.

식신은 전국 75만개의 음식점 데이터 중 8만7000여곳의 인기 맛집인 ‘핫플레이스’와 매년 엄선된 6800여 곳의 ‘별맛집(스타 레스토랑)’으로 등급을 나누어 정보를 소개한다. 300만명에 달하는 월간 방문자수(MAU) 기반의 클릭율, 검색, 좋아요 등 각종 데이터를 비롯해 회원 리뷰에 대한 가점이 분석에 사용된다. 이러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유수의 내비게이션 기업과 포털, 카드사 등에서 식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쿠팡, 빠빠로데이·수능 맞아 ‘해피 스위트 데이’ 행사

쿠팡이 11월 빠빠로데이와 수능능력 시험을 맞아 수험생 간식 및 건강식품 등을 할인하는 ‘해피 스위트 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쿠팡은 오는 11일까지 1차 행사를 진행한다. 1일 밝혔다. 빠빠로를 비롯해 14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할인율은 최대 50%에 달한다. ▲초코 빠빠로 54g 3개 ▲아몬드 빠빠로 37g 3개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에브리데이 100 홍삼스틱 60포 선물세트 등이다. 쿠팡은 2차 행사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SG닷컴

5일까지 ‘푸드 쓱 세일’

SSG닷컴이 소비자들의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행사를 마련했다. SSG닷컴은 오는 5일까지 ‘푸드 쓱세일’ 행사가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제주감귤, 샤인머스켓, 단감 등 겨울 제철과일을 특가에 선보인다. 신품종 과일 창조매, 사나노 골드사과, 마이하트포도 등도 정가 대비 3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국내산 1등급 한우는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SSG닷컴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식품 모음전도 준비했다. 덴프스 브레인케어, 정관장 홍삼즙, 위고 에빅토르 쿠키 선물세트, 인기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로셰 등 3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열리는 ‘타임딜 행사’에는 광천김 곱창 도시락김, 할리스 바닐라달라이트 등이 있다.

/이청하 기자

화장품업계, 위상 되찾나... 명동·성수서 점포 경쟁력 강화

올리브영 글로벌 특화 매장 선택 오프라인 최초 ‘서비스 라운지’ 글로벌 K뷰티 O2O 플랫폼 구축

미샤 명동 메가스토어점 리뉴얼 에이블씨엔씨 모든 브랜드 체험

아모레퍼시픽 성수동 팝업스토어 바이탈뷰티·이니스프리 등 열어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명동 타운’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색조 화장을 체험하고 있다. /올리브영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며 명동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들이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관광 상권 대표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글로벌 특화 매장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약 840% 증가했다. 특히 기존 유커 중심의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영미권, 동남아,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매장을 찾으면서 고객층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K뷰티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외국인 구매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리브영 명동 타운’은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약 3000명이고 방문 고객의 약 90%가 외국인 고객이다. 올리브영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안내 서비스를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에서도 ‘올리브영 명동 타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증별 안내, 매장 지도, 외국인 인기 브랜드 위치 등을 3개 국어로 안내한다.

또한 올리브영은 ‘명동 타운’ 내 모든 상품의 전자라벨에 상품명을 영어로 표기해 상품을 쉽게 탐색하도록 했다. 매장의 가장 전면부에는 ‘K뷰티 나우존’을 설치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을 비롯해 매월 올리브영이 선별한 K뷰티 상품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 최초로 ‘명동 타운’ 매장에 ‘글로벌 서비스 라운지’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글로벌물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웰컴 기프트’와 ‘글로벌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향후 해외에서도 글로벌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K뷰티를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올리브영은 매장과 글로벌물이 이어지는 ‘글로벌 K뷰티 O2O(온·오프라인 연계) 쇼핑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도 기존 매장 리뉴얼과 신규 매장 추가를 통해 관광 특구이자 국내 뷰티 1번지인 명동을 베이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샤는 지난 9월 서울 명동 메가스토어점을 리뉴얼했다. 특히 명동 메가스토어점은 미샤를 비롯해 어퓨, 초공진, 스틸라, 셀라피, 라포티셀까지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지난 9월 매장 리뉴얼 후 한 달 동안 일

평균 매출이 전월 대비 약 40% 상승했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블씨엔씨는 상반기 매장 순매출이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월평균 313% 증가했으며 명동 상권에 신규 매장을 추가로 개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오는 5일까지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주제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에는 ‘이니스프리’가 ‘이니스프리 다이얼 성수’를 열었다.

현재 성수는 서울에서 주목받는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성수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기준 5.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수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2023년 상반기 기준 기타 서비스업, 패션잡화, 일반음식점 순으로 기타 서비스업에 팝업 스토어로 활용되는 공간대여가 포함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패션그룹형지, 최준호 총괄 부회장 승진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의 장남 경영 혁신·신사업 육성 실적 개선 ‘글로벌 형지’ 확대... 선임 배경 작용



패션그룹형지가 2세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글로벌 형지’ 실현에 나선다.

패션그룹형지는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사장(사진)이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준호 총괄 부회장은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의 장남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23개 브랜드, 전국 2300여 개 매장에 대한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이번 선임 배경에는 경영 혁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한 실적 개선과 미국, 동남아,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형지’ 본격화가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최준

호 부회장의 ‘글로벌 형지’ 실현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까스텔바작 대표이사 선임에 이어, 같은 해 12월 패션그룹형지 사장직을 겸한 바 있다.

또 그는 앞서 지난 2011년 패션그룹형지에 입사해 10년 동안 구매생산 부문에서 실무 역량을 쌓았다. 이후 지난 2020년 공급 운영 부문 대표 역임 등 재무 부문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까스텔바작은 올해 2분기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수익성을 개선시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7.6% 성장했다.

패션그룹형지도 지난 2022년 연간 영

업이익 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4억원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형지엘리트의 경우 최 부회장이 추진한 신사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지난 2022년 대비 73% 신장한 연매출 929억원을 기록해 오는 2024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폴란드,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에 동행했다.

최준호 부회장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계열사와 협력해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신사업 육성과 해외 사업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1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출시한 프로모션 음료(토피 넷 라떼, 핑크 캐모마일 밀렉서, 말차 크림 브릴레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리저브 카테고리 제조 음료)와 사은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

대웅제약,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 실사 통과

오송 스마트 공장서 실사 진행
팩스클루·엔블로 ‘지적사항 없음’

대웅제약이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실사를 단 한 번에 통과하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신약 ‘팩스클루’와 ‘엔블로’의 신규 허가를 위해 진행된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품질관리기준 실사에서 ‘지적사항 없음’ 인증 결과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4일부터 나흘 동안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 실사단은 대웅제약의 오송 스마트 공장서 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의약품 품질관리를 비롯해 데이터 완결성,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 관련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심사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부터 4단계 인증을 받은 대웅제약의 스마트



대웅제약이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실사를 위해 오송 스마트 공장의 중앙통제실을 공개했다. /대웅제약

공정 시스템이 이번 실사에서도 ‘데이터 완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오송 스마트 공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고 단계인 5단계로 만들겠다”며 “나아가 오송 공장을 혁신신약 전진기지 삼아 오는 2027년 팩스클루의 100개국 진출과 오는 2030년 엔블로의 50개국 진출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UNDP 항암제 조달 수주
개발도상국 의료복지 지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발도상국환자를 위한 의료 복지 향상에 앞장선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최한 항암제 조달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2023년 말에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트룩시마(성분명: 리룩시맵)와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를 공급하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와 베그젤마가 개발도상국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치료제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탄저백신 국산화 연구 나서

‘GC1109’ 품목허가신청서 제출

GC녹십자가 탄저백신 국산화를 연구하며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에 나서고 있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탄저백신 ‘GC1109’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백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이 된다.

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002년부터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탄저백신 개발을 연구했다.

특히 GC녹십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서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GC녹십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따라 동물시험을 수행했다. 동물시험 결과,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 시점에도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 유지됐다.

/이청하 기자

문제는 창의력이야!



Hervé Tullet

에르베 툴레展

색색깔깔 뮤지엄

2023.11.03 ~ 2024.03.0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주관
ARTCENTER IDA

창의예술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LÜK 루크박스

협력

ARTCENTER IDA

my art

씨씨씨씨

홍보 마케팅

(주)사아컴퍼니



현대차, 전기차 디자인 핵심 '픽셀 바이 픽셀' 선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핵심 디자인 정체성 중 하나인 '픽셀 디자인'을 알리는 캠페인 영상 '픽셀 바이 픽셀'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픽셀(Pixel)'은 전기차 라인업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차



효성, 베트남에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 파견

효성이 베트남에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효성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미소원정대'를 파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미소원정대는 효성 임직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 국제구호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 74명으로 구성됐다. 현지 지역 주민 1700여명에 무료 진료와 지역 주민 출산 교육 등 다양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효성



맥도날드, '35년 브랜드 스토리' 수익금 전액 기부

맥도날드가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사사(社史) '한국 맥도날드 35년 브랜드 스토리'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국R MHC에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왼쪽)김기원 대표이사과 한국R MHC 제프리 존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R MHC 측에 사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



코웨이, 임단협 마무리...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코웨이 노사가 2년 연속으로 무분규·최단기로 임금협약을 끝냈다. 1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 7월 회사와 코웨이지부가 2023년도 임금협약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조합원 투표에서 91.85%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와 임창경 코웨이지부 지부장이 임금협약 교섭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조장천 인하대 교수, 미생물학회 학술대상 수상

인하대학교는 조장천 생명과학과 교수가 2023년 '학술대상(운봉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정용석 한국미생물학회 회장(왼쪽)과 조장천 인하대 생명과학과 교수(오른쪽)가 학술대상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한평생 먹는 음식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연 윤 열 의

자유보급

삼국유사에 “왕은 하루에 드시길 쌀 3말과 꿩 9마리를 잡수셨는데, 경신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하였다.”라고 나온다. 18세기 말 편찬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조선시대 남자는 한 끼에 7홉을 먹고 여자는 5홉, 아이는 3홉을 먹는다고 기록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일반적인 밥그릇은 350g정도의 용량에 불과하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밥그릇의 크기는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양곡(양식으로 쓰는 곡식)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56.7kg이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하루에 155.5g의 쌀을 소비하는 셈이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인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인간과 관계된 통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람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는다. 평생 동안 평균 7만 잔의 커피를 마신다. 스팸 통조림은 평균 4초에 한 캔씩 뚜껑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1인당 평균 하루 식품총섭취량은 1048g으로 1kg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기준 평균수명이 82.8세로 평생 약 3만일(365일×82.3세)동안 먹게 된다고 가정할 때 필자가 계산한 바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먹는 음식량은 무려 30톤으로, 1톤 트럭으로 약 30대분을 먹어 치운다.

현재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초과했으니 한국인이 소비하는 섭취량으로 대입해 보아도 대략 전세계인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은 무려 800만톤에 이른다. 800만톤의 음식을 만들고 폐기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의 재배, 생산, 가공, 포장, 원거리 수송, 폐기물처리 등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뇌와 소화기관, 지방의 저장 상태 등 신체내의 복잡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거식증 환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음식을 보는 순간,

식욕이 유발된다. 2시간 정도 위가 비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상승한다. 위가 팽창하고 혈류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하여 다시 지방으로 바뀐다. 지방세포에서 배고픔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식사 후에는 더 많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배가 부르다고 느껴짐에 따라 뇌의 시상하부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은 약으로 다량 복용해도 우리의 신체는 재빨리 적응하여 렙틴에 더욱 둔감해지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한끼 또는 하루 정도 (간헐적)금식을 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건강해짐으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최태원 회장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 거버넌스 혁신”

〈SK그룹〉

SK 디렉터스 서밋

이사회 중심 경영강화 논의
최 회장, 역할·방향성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만나 이해관계자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결의했다.

SK그룹은 10월 31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SK 디렉터스 서밋’을 개최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 자리는 14개 관계사 사외이사가 참석해 이사회 견제와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도 ‘거버넌스 스토리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에 직접 참여해 이사회 역할과 방향성에 의견을 제시했다.

SK사외이사들은 구체적으로 이사회 산하 감시위원회가 회사 내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 2023’의 패널토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SK그룹

감사 기구를 직접 감독해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도 신규 비즈니스 통찰력을 높이고 사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확인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주주와 투자자 등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추진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사회는 CEO(최고경영자)가 균형감이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 전

반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가 임원 및 구성원들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회사의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고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사진)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릴레이 캠페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승명호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목했다.

승 회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동섭 SK온 대표, 은답산업훈장 수훈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 기여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이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은답산업훈장을 받는다.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지난 2021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가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1일을 배터리 산업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지 대표는 현대차그룹,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누적 기준 29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글로벌 수주’를 실현하고, 2019년 6903억 원이었던 배터리 사업 매출액을 3년 만인 2022년 7조



6177억 원으로 11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 대표가 부임한 2019년 이후 미국, 유럽, 중국 등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을 개시해 글로벌 생산체계를 공고히 구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2481명을 추가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생산 기지에 90% 이상 국산 설비를 도입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하나증권 ◇부사장 선임 △IB그룹장 정영균

◆DL케미칼 ◇사장 승진 △유화사업본부장 부사장 김길수

◆투데이코리아 △사장 겸 대기자 박성태

◆대한경제신문사 ◇신임 대표이사 사장·발행인 선임 △대한경제 전무 유일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장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장 이재영 △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장 김민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학고장 임명 △국립등산학교장 민병준

◆광주일보 △정치총괄본부장 최권일

부음

▲오홍주씨 별세, 오동석(프로축구 수원삼성 단장)씨 누나상 = 1일, 경기 안산단원병원 장례문화원 3층 특실, 발인 3일. 031-410-4444

‘건축물미술작품제도’ 폐지가 답이다



홍 경 안 역
시사일과

한국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시문화 환경 개선,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공공미술작품(조형예술품 포함)만 2만여 개를 웃돈다. 적게는 개당 1000만~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다. 모르고 지나쳐서 체감이 안 될 뿐 사실상 우리 주변에 ‘돈 덩어리’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다. 리베이트가 보편화돼 있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하나 설치하려면 작가는 매개 업체에 대략 30%를 떼 줘야 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제작비

의 절반 내외를 되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작가는 산출가의 절반값에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작가로부터 받아 공친 돈은 불법 비자금이 된다.

대다수의 작가는 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다. 전문 대형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니 기회도 적다. KBS의 최근 보도에서처럼 그나마도 발주자인 건축주가 특정 작가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작가로서의 경력도 없는 오너의 친인척 작품까지 구입하는 부조리가 팽배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치된 작품들은 대개 눈 뜨고 못 볼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거리에 있는 높은 빌딩 앞 조각하거나 흉물스러운 작품들의 다수는 심미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재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도입된 ‘선택적 기금제’가 대표적이다. 건물에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설치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금제를 선택하는 건축주는 얼

마 되지 않는다. 원인은 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건축주들의 고정된 의식에 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 작품이 들어서면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곳에 설치된 작품은 자기 것이 되지만 기금출연은 그냥 내버리는 돈처럼 여기는지라 건축주들이 기금제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해법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별 수를 다 써봤지만 소수의 업체와 거간꾼들의 배만 불리는, 백약이 무효한 제도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동시대 공공미술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낡은 제도라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어째서 사유재산을 미술품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 못 하는 건축주에게 당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곧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 역시 폐지가 답이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아예 ‘의무기금제’로 바꾼 후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낫다.

/미술평론가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



김 서 현
〈산업부〉

세계 4대 성인은 모두 고독했지만 공자(孔子)는 더욱 그랬다. 공자는 긴 세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고언을 받아들이 일 군주를 찾아다녔지만 죽는 날까지 찾지 못했다. “때로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로 시작하는 논어의 두 번째 구절이 “먼 곳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이 있으니 기쁘지 아니한가”인 것은 그의 삶 자체를 말한다 할 수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고 외롭다. 그래서 타인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동분서주한다. 첨단 ICT 기술이 결국 누군가와 이어져 떨어지지 않으려는 기술이라 생각하면 무척 의미심장 하다.

요즘 IT업계는 ‘소셜마케팅(Social marketing)’을 충성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보고 힘쓰고 있다. 처음 론칭했다고 하는 여러 서비스 앱과 웹을 보면 늘 이용자 간에 의견이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두고, 누군가의 글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꼭 둔다. 전 세계 최첨단 기술의 선두에 선 메타의 시작은 2009년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였다는 몇몇 학자들의 평가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가 싶다. ICT 기술이 견장을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심연에 있는 절대고독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상 모든 현상은 다면적이다. 첨단 기술도 그런 듯 하다. 지난 3월 고립 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립 은둔 청년이 집에서 하는 활동은 주로 ‘인터넷(59.1%)’로 나

타났고 그 다음은 게임(11.1%)였다. 비교군인 서울시 청년 또한 52%가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한다고 답했는데, 2순위는 게임이 아닌 TV시청(10.1%)로 달랐다. 은둔 고립 청년은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서울시 청년은 도리어 홀로 즐기는 독서, 음악 감상, 실내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SNS나 채팅등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서울시 청년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인터넷은 1969년 UCLA와 SRI연구소 간 연결로 시작 된 ARPANET 후 시작됐다.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하기 위해 시작된 인터넷이지만 우주보다 넓은 망망대해 인터넷 속에서 여전히 외로운 누군가들이 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결국 있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음 9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온다. 4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곧 좋은 일이 온다. 60년생 영원한 내 편 부모님이 있어서 좋다. 72년생 꽃동산에서 즐겁게 지냄. 84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해결.



37년생 자식이 큰 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49년생 행복은 고요한 것이니 내가 만족하면 그만. 61년생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73년생 다시 씩씩하게 가던 길을 가자. 85년생 전문가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38년생 익숙해져도 게으름 피우지 마라. 50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어가자. 62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74년생 일을 속히 하려고 서두르다 뒷걸음. 86년생 기대를 접으니 실망도 없다.



39년생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대하라. 51년생 제바가 집을 짓듯 남의 잘된 일을 칭찬. 63년생 호랑이의 기세로 살피면 기회가 온다. 75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으니 먹는 것에 천천히. 87년생 이룰 수도 저룰 수도 없으니 난감.



40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52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4년생 사상누각은 기초 없이 모래위에 세운누각. 76년생 주변 무관심이 오히려 편함. 88년생 세 개를 뿌리고 겨우 하나를 얻는다.



41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3년생 지나간 인연이 자꾸 주변을 맴돈다. 65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77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외출. 89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42년생 가까운 바다라도 여행을 해보자. 54년생 장사를 계속 하려거든 웃어라. 66년생 모든 일은 순서대로 차분하게 행하여야 한다. 78년생 금전거래 문제로 속상하니 계획을 차분히 세우자. 90년생 이직은 심호흡하고 마음을 비워라.



43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55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67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79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자. 91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하자.



44년생 배우자가 큰 조력자임을 명심. 56년생 뱀띠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6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80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해도. 92년생 새 한 마리가 앉아서 부러지는 갈대는 있거 마련.



45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불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57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 69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보관. 81년생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93년생 창업하는데 즉흥적이지 말고 심도 있는 계획을.



46년생 앞만 보고 달리는 건 너무 힘이 든다. 58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70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오히려 낫다. 82년생 땀 때를 한 발짝씩 물려서 길을 양보해야. 94년생 불평보다는 자타공인의 기술력을 갖추도록.



47년생 변화의 날이니 소지품 조심. 59년생 진실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니다. 71년생 종로에서 땀 뺀다고 한강 가서 분풀이하는 격. 83년생 이상의 속삭임이 많으니 의지가 필요할 것. 95년생 재물 앞에서 형제끼리 과몰입하는 자두연기(煮豆燃箕).



김상회의四季

문제 엄마

갑질 부모 노릇과 추락한 교권에 멎든 한국 교육의 모습에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많은 사건의 발생과 보도로 교육의 현주소에 새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삼십 년 전이라고 해서 없었던 문제는 아니였겠지만 이렇듯 그 수위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것도 저어하던 시대와는 달라져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교육계가 이렇다면 인간성의 상실은 이미 회복이 힘든 상황이 아닐까. 내 아이가 귀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유사 이래 이렇게 출생률이 저조한 때가 없었고 이러한 상태로 삼십 년만 더 지난다면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혼인율이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설령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집이든지 신주 모시듯 아이들은 왕자며 공주가 된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품성 교육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녀 교육은 시중들기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어디에 가서든 최고의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이는 학교 교실 현장에서도 당연하다고 여긴다. 교실 수업 분위기를 망쳐도 내 애는 그저 개성으로 존중받고 야단을 맞거나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디지털 AI시대의 교육 방식은 정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과거 유교적 가치관에 맞춰져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AI로봇은 아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휴먼(human)이 지닐 수 있는 감정을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가치로서 품격있게 갖춰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그 기반과 기초를 키워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면서 특히 엄마다. 문제 아동 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좋은 연기 위해 ‘멘탈강화’ 힘써… 연기자 권익보호 앞장”

인터뷰 최 범 호 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TV 드라마, 영화, 각종 OTT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작품이 공개되고 있지만, 작품을 통해 대중 앞에 보여지는 연기는 제한적이다. 감독이나 캐스팅 디렉터에 선택받지 못하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게 방송연기자의 안타까운 숙명이다. 소속사가 없는 사회초년생 연기와 한 때는 잘나갔더라도 지금은 세월 앞에 장사없는 중장년 배우의 경우는 더욱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최범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가 선후배 연기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최 사무총장을 만나 당면한 현실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방송연기자들의 권익보호 및 자질 향상,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197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현재 19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초대 회장 이순재를 시작으로 현재 25대 이사장 자리에는 배우 최수종이 앉아 있다.

최범호 사무총장은 “지난해에 최수종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방송연기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며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장이나 연기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에 맞게 협회 소속 연기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총 30명의 연기자를 선발해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8주간 주3회에 걸쳐 이론부터 실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최 사무총장은 “많은 예술인이 의의

로 대인기피증이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쓴 점이라면 멘탈 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무너지면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다. 좋은 연기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멘탈 특강에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멘탈 특강에는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대표와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 최창호 서울현대전문학교 석좌교수 등을 초청해 진행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솜품을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유튜브에 업로드해 대중에게 공개한다.

“과거에는 방송국 TV 드라마 감독들이 배우들을 발탁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외주 제작사를 두고 드라마를 제작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없고,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오디션 정보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고령층 배우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겠죠. 그러



최범호 사무총장이 방송연기자협회 역대 이사장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방송연기자협회 1971년 설립

현재 소속회원 1900여명 달해

개인이 오디션 정보 등 알 길 없어 사각지대 없애는게 협회의 생각

K-컬처의 힘, 선배들이 일궈내 그들 외면 말고 협회가 나서야



한 분들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두지 말자는 게 협회의 생각입니다. 협회는 많은 연기가 출연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 홍보물 제작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대중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홍보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지난해 연천군과 ‘대중문화예술을 통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천군의 각종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홍보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숭의여자대학교와도 K-드라마를 대표하는 연기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현장실습 및 교수 산업체 연수에 대한 협력 ▲산학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진로지도 연계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인적교류 확대 등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에는 방송국마다 공채 탤런트 제도가 있어 자연스럽게 협회가입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 신규 회원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연기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뭐가 좋으냐’ ‘협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현 시기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드라마 콘텐츠 제작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콘텐츠 플랫폼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게 가장 큰 이유다.

과거에는 지상파 3사 채널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tvN을 비롯한 케이블 채널과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채널, 국내외 OTT 서비스까지 드라마 시장이 여러 플랫폼으로 쪼개지면서 전문 제작사도 생겨났다. 유명 에이전시와 소속사, 제작사 디렉터의 정보가 없으면 출연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최 사무총장은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연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K-컬처의 힘은 그동안의 선배 연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일궈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고 협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가 하는 일이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제공, 친목단체 어느 하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드라마 산업이 환경적·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배우자에 허위 급여… 회계사 부당거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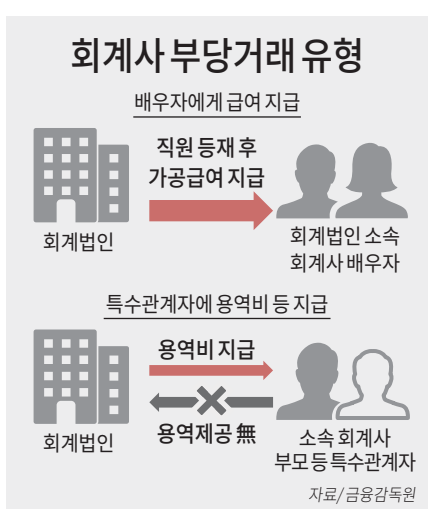
금감원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사례 관련 회계법인 부당행위 엄정조치”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올리고 월급을 받아가다가 하면 자녀나 부모님에게 용역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에 앞장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갑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해 증빙도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 내에는 출근이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가 전혀 없었다.

B 회계사는 자신이나 특수관계자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앱 개발회사 등으로 용역과 전혀 무관한 곳들이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해당 거래처는 업무를 수행할 전

문인력이 없는 곳이었다.

C 회계사는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무 경험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주는가 하면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나 관련 업무를 했다는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하철 객실의자 없애 혼잡도 낮춘다

서울교통공사, 내년 1월 시범사업 혼잡도 높은 4·7호선부터 시작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에서 2개칸 내 일반석 의자를 없애 혼잡도를 줄이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공사 관계자는 “객실 내 의자 제거는 호선, 차호,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밀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 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4호선과 7호선은 올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로 여전히 150%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와 수송력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객실 의자 제거 시 지하철 혼잡률은 34.1%~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 탑승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후 모습. /서울교통공사

공간을 확보해 승객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공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높은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호선 3편성 30칸, 7호선 1편성 8칸의 도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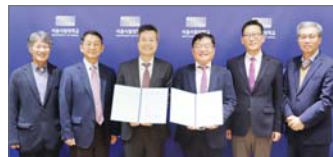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범사업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청조, 남현희에게 최소 10억 금품 제공…4억 벤들리도 선물”
▲고용부 장관 만난 청년근로자 “사장이 괴롭히니 조사 어려워” /사진 뉴스스

▲검찰, 부실대출 혐의 부산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사퇴,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



▲서울시립대, 케이엔솔과 ‘첨단 반도체 분야’ 협약 /사진 서울시립대
▲차량 화재 현장서 의식 잃은 모자 구한 시민 2명 감사장



하림
어린이식 브랜드 론칭
아토피 있어도 OK!
L1



Life

화장품업계
명동·성수서
점포 경쟁력 강화
L2



서울시, 내년 예산 13년 만에 축소 ‘도로 교통’ 줄이고 ‘약자 동행’ 늘려

올해보다 1.5조 감소한 45.7조 편성
세입 감소에 재정여건 고려해 축소
증액 규모 가장 큰 부문 ‘사회복지’

서울시가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13년 만에 예산을 축소
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한 45조7230
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
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전년(41조5830억
원)과 비교해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
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으로 올해보다 6465억
원 감소한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시는 ▲약자와의 동행(13조
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원) 3대 분야
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1일 오전 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회’에서 “민선 8기 디테일을 집중적으
로 챙겨야 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
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3000억원정도 늘렸다”고
말했다.

시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년(13조2100억원)
보다 3025억원 늘어난 13조5125억원이
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
공급(3813억원), 지하철 1역사 1동선
구축 완료(383억원), 결혼이민자 맞춤
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124억
원) 등에 투자한다.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
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2조1376억원을
투입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착공, 침수취약지역 35개소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배수 성능 개선,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
관리에 각각 1049억원, 1178억원, 2753
억원을 쏟아붓는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
는 ‘사회복지’ 부문이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4025억원
(2.5%) 늘었다. 또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
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
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
이 축소됐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
(11.8%) 줄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봉천 등 건축심의 통과… 총 2041세대 공급

봉천14구역·문배특계구역2-1 재개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
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
혔다.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관악구 봉천동)을 통해 지하철 7
호선 송실대입구역 일대에 공동주택
1571세대(공공 260세대, 분양 1311세
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해 통경축을

넓게 확보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
은도서관을 별도로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공공시설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용산구 원효로1
가)을 통해 1호선 남영역 인근에 7개
동, 지하8층~지상39층 규모로 공동주
택 470세대(분양 470세대)와 오피스텔
462호,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저층부(지상 1층~5층)에는 판매시
설, 공공업무시설이 배치되고,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공공보행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研, 정책·과학기술 융복합 연구기관으로

서울기술연구원과 기관통합 완료

서울연구원이 1일 서울기술연구
원과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정책 및 과학
기술 분야의 융복합 혁신 연구기관으
로 재탄생한다.

서울연구원은 ▲정책·기술 분야 융
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으
로 재설계 ▲연구중복 관리강화 및 조
직관리 효율화 ▲서울시 역점사업 추
진과 미래 지향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

한 연구조직 신설 등 세 가지 기본방향
을 세우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서울연구원장 직속의 ‘전략연
구단’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현안연구
실’을 합쳐 ‘미래융합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융복합 연구과제를 기획·발
굴할 예정이다. 연구중복 관리와 조직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부서를 3
개 본부로, 연구지원부서는 연구기획
실, 경영지원실 체제로 전환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동탄~판교역 등 12개 노선 운행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동탄2신도시
~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0개 노선을,
13일부터 안산 반월공단~수원역 등 2개
노선을 각각 운행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
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
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
영하는 제도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
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
선, 1천517대가 운행 중이다.

/유진재 기자 yujin@

교육재정 ‘빨간불’… 미래 교육환경 구축 집중

내년도 예산안 11조1605억 편성
교권전담번호사 배치 등 교육활동 보호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본예
산안으로 11조1605억원으로 편성했
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4%(1조
7310억원) 감소한 규모다. 시교육청은
특히 올해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육
계 이슈로 불거진 교권 보호 종합대책
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교육 환경 구축
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11조1605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
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

이 켜지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전환, 학교 안전과 같이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
혔다.

2024년도 핵심 투자 분야는 ▲교육
활동 보호 및 지원(83억원) ▲미래교육
기반 구축(3884억원) ▲기초학력 내실
화(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7045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수 사업 예산 삭
감 상황에서도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5.8%(550억원) 증액해 총 9970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서다.

교육활동 보호 및 위한 주요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번호사
배치 9.3억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
영위원회 운영 6억원 ▲1교 1번호사 제
도 도입 33.6억원 ▲녹음가능전화시스
템 구축 13억원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배치 및 운영 4.7억원 등을 편성했다.

오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교육환경 조성
에도 힘쓴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은 ▲디
지탈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17억원) ▲
학생스마트기기보급 ‘디벳’ 2977억원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보급 218억
원 ▲전자칠판(416억원) ▲2022년 도
입된 스마트기기 양품화비 112억원 ▲
디지털 튜터 용역비 13억원 등이다.

/이현진 기자 lhj@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온라인 굿
즈샷’ 공식 론칭 /사진 뉴시스
▲손흥민·김민재, 외신 선정 EPL·분데
스 ‘10월의 팀’

▲‘타선 대폭발’ 텍사스, WS 4차전 승
리…우승 ‘1승 남았다’
▲‘감독 공백’ SSG, 어수선한 분위기
속 유망주 캠프



▲‘우리은행 vs BNK’ WKBL 공식 개막
전, 챔피언결정전 리매치
▲‘파죽지세’ 9연승…NC, ‘PS 최다 연
승’ 넘본다 /사진 뉴시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들이 책을 읽고 뛰어노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고 큰 행복이죠'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 (52세)

오랫동안 출판업을 하면서
제가 살던 고향에 책마을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마침 종조부님이 세운 초등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소식에
고민 없어 고향에 내려가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주셨죠
고맙다며 간식을 챙겨 주거나 책을 기증해 주셨고
일손이 되어 힘을 더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 만들어진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늘 감동이고 큰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세번째 이야기

To BOOK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KB금융그룹